

이근용의 히든스토리 **큐! 계속 걸어, 걸어**

오늘의 SBS가 있기까지 초창기 창립멤버의 피와 땀 그리고 방송에 헌신한 그들의 노고를 잊을 수가 없다. 어느새 창립 25주년을 맞이했으니... SBS방송 탄생 첫 드라마 정하연 극본, 필자의 연출 "고독의 문"을 시작으로 주일청 연출 "겨울새"를 비롯하여 드라마 왕국을 이끌어낸 선배 PD들에게 다시 수고하였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 우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수목드라마 "이 남자가 사는 법"을 빼놓을 수가 없다. 1994년 3월 2일 첫 방송이 되었는데 유동근, 전인화, 김세운, 오현경씨의 출연으로 그 당시 시청률 1위였고 SBS 대표작이었다. 화려하게 시작하고 막을 내렸지만 씁쓰름한 뒷맛을 남긴 여운의 첫 회 대분을 받았는데 1.4 후퇴 할 때 피난민 행렬장면, 헬리콥터 촬영 요구와 엑스트라 300명 이상, 각종 탱크와 기관총, 중공군 행렬, 공공 일여붙은 한탄강을 200명 이상이 걷는 장면, 폭발에 의해 하늘로 날아가는 소달구지와 피난민... "아 ~ 큰일 났다. 이걸 할 수 있을까?" 탄식이 나왔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눈보라 장면은 갈수록 태산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전곡 모 군부대 근처에서 촬영이 시작되었는데 눈 효과를 위해 소금 500가마, 스티로폼 4톤, 강풍기도 준비되었다. "큐!" 소리와 함께 강풍기가 돌아가고 일제히 눈보라가 몰아치는 강위를 걷는 엑스트라들 -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공공 연 한탄강 위로 걷던 출연자들이 사람들의 무게에 못 이겨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나기 시작하자 출연거부 소동이 일어났다. 그런

※ 그동안 히든스토리를 알차게 연재해주신 박충 사우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 | 우 | 동 | 정

이창섭(보도) 종편 TV조선 생활정보 프로그램 '광화문의 아침' MC로 활동중이다. 다시 마이크앞에 돌아온 이사우는 매주 토요일 강원민방 시사프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유지현(아나) 이달 문경에서 열리고 있는세계군인체육대회 미디어담당 대변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유 사우는 금년 7월 광주U대회에서도 미디어담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중수(제작)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 문을 연 드라마 제작사 '조이플 파트너'에서 고문 겸 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최희준(보도) 지난 6월 말 TV조선 인사에서 보도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최 사우는 뉴스 말미에 거수경례로 눈길끄는 TV조선 메인 뉴스쇼 판을 진행하고 있다.

박영민(아나) 카톨릭 관동대학교 스포츠학과 겸임교수로 후학을 가르치고 있다. 박사우는 스포츠 캐스트로 활약한 경험을 토대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이근용(제작) 한국 드라마 프로듀서 스텝 원장 퇴임 후 최근 인터넷 방송장비 담당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회사는 국내 음향과 영상을 전달하는 시스템 대표기업이다.

이시권(편성) 최근 영화전문 인터넷 신문(마이씨네)에 영화관련기사와 평을 계속해 신고 있다. 인터넷 주소는 www.mycinemanews.com 이다.

민충기(보도) 최근 밀양시장 홍보특별보 임명돼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영남의 알프스 밀양 홍보에 여념이 없다. 민사우는 2년전 밀양으로 귀농했다.

백의 절반 심은 半百이고 이 半百의 절반은 25년, 백년 4분의1 四半世紀다. 2015년 11월 14일 SBS가 사반세기 한 획을 긋는다. 대한민국의 방송의 새 지평을 연 창립 25주년, 이 계절 만큼이나 아름다운 스물다섯이다. 사우회 창립일에 참석한 사우들은 25년 전 여의도 그 열정을 다시 달구듯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개국일이 하루 하루 다가 올 때마다

모두 피가 말랐지"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해도 머리에 피난 사람 없었잖아" 여의도에 주춧돌 놓고 목숨에 머릿돌 세긴 25년을 일조한 역전의 용사(?)들은 SBS 내일의 25년은 상상 할 수 없는 발전의 半百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내년 사우회 창립 10주년에는 이런 선물이 어떨까? "사우여러분의 청춘을 모두 10년전으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단 사우회 참석 개근상을 타신분에게...

- 〈사우 SNS〉** 이찬휘 사우 - 운동하기전 3~4잔의 커피를 마시면 하루에 2잔 이상 마시면 간질환 예방. - 하루에 6잔을 마시면 당뇨병의 위험도를 크게 줄인다.
- 윤동하기전 3~4잔의 커피를 마시면 운동을 오래할 수 있다. - 하루에 6잔을 마시면 당뇨병의 위험도를 33% 줄일 수 있다.

SBS 사우회보

www.sbssau.co.kr

SBS 사우 3대 덕목
서로 이해하는 마음
서로 존경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

2015년 10월 1일 제 36호

발행처 사단법인 SBS사우회 발행인 김수용 편집인 박동주 주소 150-89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22, 605호(태양빌딩) TEL 02)783-0590~1 FAX 02)785-9805



▲ 가을 들녘 허수아비 앞에서 잠시 동심에 젖은 사우들

가을을 만나다

사우회 창립 9주년 기념식

SBS 사우회 창립 9주년 기념식이 지난 9월 4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사우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김수용 사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SBS 사우회가 아홉해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게 된 것은 사우들의 하나 된 참여정신의 결과라며 500여명의 사우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회장은 이어 내년 이맘때는 전 사우들이 자리를 함께 하는 뜻 깊은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위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 하겠다고 밝히고 70세 나이에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한 맥아더 장군의 기백처럼 나이를

있는 왕성한 활동으로 SBS 사우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본사를 대표해 윤세영회장의 축하 화환을 전달한 김회남 경영지원본부장은 효율적인 경영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드라마 시청률 상승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의 선전으로 분위기가 매우 활기차다는 본사 소식을 전해 주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50여명의 사우들은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즐기며 12월 7일 송년회 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 사우회 창립 9주년 축하 케이크를 자르는 원로 사우들의 환한 모습

12월 7일, '다른 약속 잡지마세요'

SBS 사우회 2015 송년회가 12월 7일 월요일 오후 6시 서울마포구든 호텔에서 열린다. 사우회는 지난해 송년회 때 보여준 사우들의 호응에 보답하기 위해 더 알찬 준비를 위한 송년회 TTF팀을 구성했다. 박건삼 사우회 부회장을 필두로 연출, 음향, 조명, 섭외 등 각 파트별 선정된 13명

명의 TTF팀은 지난 달 18일 1차회의에 이어 이달 23일과 다음 달 두차례 회의를 통해 멋진 송년회를 준비하게 된다. 특히 여흥을 돋구게 될 2부 행사는 장르별로 음악성이 뛰어난 출연진으로 품격있는 무대를 꾸밀 계획이다.

너심나심

- 사우회 창립 9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굵디고운 나이테 9개를 새긴 사우회 나무를 보니 미운 아홉 살은 틀린 말, 고운 아홉 살이 맞는 말
- 가을은 동호회의 계절. 요산요수회는 가을길 견고 문화예술회는 가을을 음미하고... 뭉클이는 가을을 마시니 이것이 진정한 가을에 취하는 것이로다.
- 2015 송년회 준비, 아니 벌써? 한 해를 보낼 때가. 100km 세월의 속도에도 스티를 못 느끼신다면 송년회 선물은 '브레이크 없는 벤츠'
- SBS 창사 25주년 특집 드라마, 25살 청년 이방원 스토리애다가 주인공 유아인은 25살 아름다운 청년 스프스 닳았으니 육룡이 나르샤체널 6이 날아오르다.

퇴직 방송인 재교육,기회의 문이 열리다

퇴직 방송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비영리 사단법인 <50플러스 코리아>은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퇴직방송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매주 두차례 10주간 과정의 재교육 프로그램은 전문 편집 SW 등을 활용한 실습, 다큐멘터리 기획, 취재, 구성, 촬영 등의 커리큘럼으로 새로운 방송환경에 부응하는 디지털방송 스마트영상작가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8월 초 시작된 1기생 교육에 많은 퇴직 방송인들이 몰려 30명 정원을 50명으로 늘리기까지 했다. 이 재교육 프로그램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수강료가 전액 무료이며 이달부터 2기생 교육생을 선발하고 있다. 새로운 방송환경에 부응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퇴직 방송인들은 독립제작사 취업과 개인창업 등의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SBS 드라마 날아오르다

창사 25주년 특집극 <육룡이 나르샤>

SBS 창사 25주년 특집으로 기획된 월화드라마 <육룡이 나르샤>가 10월 5일 날개를 폈다. 총 50부작 <육룡이 나르샤>는 조선의 기틀을 세운 철혈군주 이방원 중심, 여섯인물의 아방과 상공 스토리를 다룬 팩션 사극으로 시청률 대박을 기록한 뿌리깊은 나무 연출 신경수 PD와 김영현, 박상연 작가 콤비가 다시 뭉쳐 만들고 있는 작품이다. 영화 베테랑에서 무서운 연기를 보여 찬사와 호평을 받은 유아인이 젊은 이방원역을 맡아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김명민이 정도전으로 천호진이 이성계로



출연해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미생에서 주목을 끈 변요한이 바람의 검객으로 나와 사극연기의 변신을 보여준다.

방송 3사 고수들의 축제

SBS 사우회가 주관하는 방송 3사 사우회 바둑대회가 이달 12일 여의도 송천 기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가을 KBS 주관 첫 대회를 시작으로 지난 봄 MBC 주관의 두 번째 대회에 이어 SBS 사우회가 처음 주관하는 세 번째 대회다. 이 대회를 통해 여의도 방송계 퇴직 사우들은 방송인의 동질성과 연대감을 확인하고 친목과 우의를 나누는 등 방송 3사 사우회 교류의 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첫 대회서 우승한 SBS 사우회는 다시 우승컵을 차지하기 위해 지난 9월 4일 예선대회를 열어 고장석, 박광호 사우를 최고위전 대표 선수로 선발했다.

SBS社友漫評



방송의 미래를 여는

미술, 영상, 기술 전문회사 SBS A&T

미술
무대디자인, 소품, 의상, 미용, 조명, 그리고 비주얼 디자인으로 구성된 종합예술 영역으로 창의적인 영상 미술을 제공합니다.

영상
드라마, 교양, 예능, 영화, 뮤직비디오, CM, CF, PR 등의 영상과 SBS 보도영상 취재, NLE 편집, Ingest 등 보도 영상에 대해 전문가들이 완성도 높은 콘텐츠 제작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
방송 전문 엔지니어들의 축적된 노하우와 최신 방송장비 운용으로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사업
방송 미술, 영상, 기술 영역에서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시스템 구축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고객에게 최적의 미디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대표전화 02)214-11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22, 605호(태양빌딩) 1층
02)783-0590~1 02)785-9805

무대디자인 / 소품 / 의상 / 미용 / 조명 / 3D 컴퓨터 그래픽 / 비주얼 디자인 / 야외촬영 / 특수 촬영 / 해외 위성 송출 / 방송 전환 / 중계차 임대 / HD 방송시스템 구축 / IT 네트워크 / 행사 이벤트 사업 / 방송 시설 SI 사업

지금은 동호회의 계절

8개 동호회 풍성한 활동

사우회 8개 동호회가 풍성한 활동으로 가을을 수 놓고 있다. 골프 동호회는 지난 달 가을 첫 라운딩에 이어 10월 28일 태영 CC에서 사우회장배 골프대회를 연다. 한 동안 활동이 주춤한 당구동호회는 지난 8월 활동을 재개한 후 9월에 이어 10월 26일 서초구 교대역 당구장에서 친선대회를 갖는다. 요산요수회는 지난달 17일 인양천 제방 걷기에 이어 이달 말 경의선 숲길 공원을 따라 걷는다. 음악감상동호회는

지난 9월 11일 사우회 사무실에서 막걸리 특집 2만 모임을 가진데 이어 오는 29일 고양아람누리에서 마티넛 감상회를 갖는다. 수목화 동호회는 지난 9월 9일 파주 교하에서 가을 나들이 사생대회를 가졌다. 한편 사우회는 당구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박찬근 사우와 김해근사우를 각각 회장과 총무로 선임했고 이에 앞서 골프 동호회는 지난 5월 김재백 사우를 회장으로, 윤종덕 사우를 새 총무로 뽑았다.



가을 속으로 떠나자

10월 22일은 단풍여행 가는 날

어딘가 떠나고 싶은 계절, 사우들이 가을 정취에 흠뻑 젖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우회가 준비하고 있는 가을 나들이다. 오는 10월 22일 떠나는 가을 나들이 행선지는 사우회가 미리 결정하지 않고 사우들이 추천한 곳 가운데 가장 관심도가 높은 지역을 투표로 선정된다. 추천된 후보지는 파주 벽초지 수목원과 서울역

에서 기차를 타고 떠나는 도라산 투어, 천년고찰 여주 신륵사의 가을 풍광을 보고 이천에서 온천을 즐기고 오는 코스 등이다. 사우회의 이번 가을 나들이는 사우회가 문을 연 이후 공식적인 처음 행사로 매년 봄 한 차례 갖는 사우들의 아우회의 갈증을 풀어보고 내년에 정기적으로 봄 가을 두 차례 아우회를 갖는 준비과정의 일환이다.

<협찬금 내신 분>



정동욱 (50만원) 박영만 (30만원) 김경환 (30만원) 이은범 (30만원) 정동천 (30만원)

<SBS창립 25주년 小考> - 글/이갑우

아리따운 그녀

옛그제 같았는데.. SBS가 다음 달 스물 다섯이다. 맨날 흐르는 시간의 속도는 무덤덤하지만 SBS 지난 25년의 시간은 달리 느껴진다. 초창기 그때를 공유하신 분들의 만감이 아닐까 싶다. 난 그때 만난 어느 아가씨의 얼굴이 떠오른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아가씨였다. 모두가 개국 준비로 정신없는 사무실로 우락부락한 남자의 손에 이끌려온 그녀. 이쁘지는 않으나 환한키에 몸매도 늘씬해 가꾸면 매력 있을 것 같은 모령의 그녀. 남자는 그녀를 받으려며 신상명세서를 놓고 가버렸다. 이 여자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여자가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 밤샘 토론 끝에 J부장이 용단을 내렸다. '야! SBS가 여자 한번 키워보자' 일사 천리로 가속도가 붙었다. 편성, 제작, 보도 홍보 등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IT팀이 구성되고 부서간에 격의 없이 밤샘 작업을 해도 피곤함을 잊었다. 역시 여자에 관련된 일에 사내들이 매달리던 능력이 오르는 법인지라 1992년 11월 이 아가씨의 신상 명세서를 밝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반짝 빛나는 별이 되어 한국 최고의 스타 산실로 자리 매김 했다.

SBS 25년 최고의 장수 프로그램은 '그것이 알고 싶다'로만 알고 있다. NO, NO, 아니다! 한국슈퍼모델 선발대회다. 올해 24번째 대회를 열었다. SBS 25년과 함께한 프로그램이다. 본사에서 태어나 자회사로 넘어가는 동안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된 명실상부한 최장수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다. 아리따운 슈퍼 모델 탄생 비화를 접으면서 서울세계 불꽃축제 얘기로 끝을 맺을까 한다.

이 또한 개국 당시의 열정과 도전정신 그리고 부서간 격의 없는 의사소통이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대비해 제안된 이 행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관련부처, 협찬사, 그리고 SBS 실무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지금은 협찬사가 행사를 주관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16년째 계속되고 있는 불꽃놀이다. 지금도 그 시절 함께 일하던 선후배를 만나면



불꽃처럼 그때의 감동이 되살아나 가슴이 울컥해진다. 아마도 '우리 SBS' 라는 마음의 울타리에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5살 '우리 SBS'의 생일을 축하한다. SBS 50살 생일 때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도 아리따운 그녀를 만날 힘이 있으니까.



가는 여름

글/김광진 사우

폭염이 어느 해보다 기습을 부렸던 지난 여름, 나는 특별한 보양식 덕분에 더위를 느끼지 못했다. 명명이나 삼계탕이 아닌 나주 곱탕과 영남포 흥어였다. 진국이 우라난 뜨거운 곱탕으로 이열치열을 읊미 했고 코끝을 톡 찌는 삭힌 흥어로 온몸을 떨게하는 전율을 즐겼다. 이런 맛으로 더위를 식힐 수 있었던 것은 지난 7월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준 여를 보니 스였다. 축구 경기가 열린 나주스포츠편 타에서 방송 매니저로 봉사한 열흘은 퇴직 후 쫓지만 다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생동감을 발견한 여름이었다. 방송 중계



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분야별 협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일이 낯선 사람들과 마음을 통하는 게 우선이었다. 다들 왕년의 술씨들이 녹슬지 않아 손발이 척척 맞았다. 오랜만의 근로가 엔도르핀을 솟구치게 하니 흥어와 막걸리가 따라다닐 수밖에... 사실 올림피아나 월드컵에 길들여져 웬만한 국제경기는 관심 밖인 게 실상인데 유니

버시아드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길 바라는 광주시민의 관심은 뜨거웠고 메르스도 아랑곳없이 참가한 지구촌 젊은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진지했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최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 특히 나주시는 시가 생김 이후 가장 큰 국제 경기가 열리는 터라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한국과 이태리의 남자축구 결승전이 열린 날은 월드컵 경기장을 방불케 했다. 경기장을 찾은 나주시민들의 지극심은 대단했다. TV 화면에 나주를 세계에 알리고 싶은 흥보대사 같았다. 나주는 예부터 작은 한양이라고 불리듯 읍성과 옛 고분군들이 잘 보존 되어있는 볼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남도의 관광명소로 나주시민들의 애환심은 남달라 보였다. 좋은 음식에 좋은 사람까지, 10여 일간 머문 나주는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닌 오랜 기억속에 남을 도시가 되고 말았다. 비가 내리는 경기장 잔디밭 언덕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완팔에 찰과상을 입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상처는 아물지 않고 통증이 더 심해졌다. 정밀검사 결과 인대가 끊어져 접합 수술을 받았다. 현장에서 얻지 못한 값진 시간을 보낸 나주, 시상대에 올라가 메달을 받는 선수처럼 수술대에 올라가 영광의 상처(?)를 받았기에 나주는 호사사마의 여름날이었다. 곱탕에 삭힌 흥어 한 점만 먹으면 상처가 금방 아물 것 같은데...

오는 가을

글/현일범 사우



세들이 날아와 아침을 깨웠다. 먼 곳 일진강 바람결이 창을 흔들었다. 창문을 열자 상큼한 공기가 가슴을 적셨다. 아직 뿌리가 활착하지 않은 정원의 나무들이 성급하게 갈색 옷으로 갈아입고 있다. 파주 교하에서 전원주택의 삶이 시작된 후 처음 맞는 가을이다. '세상에 집짓는 것 만큼 힘든 게 없다' 고해서 몇 해를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지난 봄 첫 삽질을 시작해 옛그제 동지를 틀었다. 과거 집을 지은 경험에 비추어 치밀하게 준비하고 공사를 시작했던면 역시 세상에 집짓는 것이... 그 말이 진리였다. 전원생활에 익숙하려면 목은 간장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채 몇 달이 되지 않은 사이에 해답을 찾았다. 하루 건너 친구들을 불러 바베큐 파티를 하고 아내와 함께 숲이 보이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낭만에 젖어 어찌고 하는 것은 호사스러운 생각일 뿐 부지런하지 않으면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라였다. 나는 돌아갈 아파트가 없기에 매일 뒤돌아서면 자라는 풀을 뽑기가 피곤하지만 텃밭에서 위안을 받고 있다. 상추, 고추, 가지, 푸성귀를 키우는 쓸쓸한 재미속에서 전원 생활을 익혀나가고 있다. 까치가 울면 희소식이 온다는 말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다. 까치가 울면 비보가 전해진 다로 바꿀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까치 때가 슬금슬금 며칠 후 따러는 포도를 쪼아버려 첫 수확의 기쁨을 맛있게.

알았이 영근 포도의 활짝 자국을 보며 망할 놈에 까지. 너는 살날도 없고 생일도 없을 것이다라며 일갈했다. 전원생활 겨우 반년. 배울 것도 많고 할 일이 끝이 없는 것 같다. 새삼 연천에서 오랫동안 전원생활을 하시는 P선배가 떠올랐다. 전원생활 달인으로 인정하고 싶은 P선배, 연천을 들릴 때마다 챙겨준 감자와 콩을 쉽게 받아올 줄만 알았지 힘들게 재배한 노고를 몰랐다가 이제사 알았으니 가을 건이 첫 수확물을 P선배에게 보내려고 한다. 정신없이 집을 짓고 이사하는 바람에 여름을 잊어버렸다. 전원생활의 정취를 느낄 사이도 없이 가을이 몰려



가고 있다. 지난달에 심은 감장배추가 속찬 몸매를 드러낼 쫓 가을의 끝자락을 느낄 것 같다. 이나이에 가을 센터멘탈의 허허로움보다 손자가 몇 센터 자랐는지 그것이 알고 싶은 뿐이다. 아파트 층간소음에 발목잡혀 쿵쿵거리며 뛰어놀지 못한 손주 녀석들이 잔디밭에서 마음껏 뒹굴고 뛰어노는 해변의 몸부림을 보면서 전원 주택으로 이사 잘 왔다 라는 행복감이

<이해성의 음악 이야기>

C'est Si Bon



'고엽은 삼으로 퍼서 모아진다네, 알다 시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추억과 회한도 또한 그 고엽과 같다는 것...' 이탈리아 출신 영화배우, 상송가수 이브 몽팡이 부른 Autumn leaves의 한 귀절이다. 낙엽지는 가을에 감미로운 저음의 목소리, 너무나 매력적인 그의 '고엽'을 들으면 가슴을 애잔하게 훑어내린 60년대 초년병 PD시절이 떠오른다. 같은 노래라도 듣는 분위기에 따라 감정은 천차만별이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고엽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발길을 멈춘 곳, 무교동 세시봉 음악감상실에서 듣는 고엽은 완전 색다른 맛이였다. 몇 해 전부터 7080시절의 음악이 그 시대 주역들의 감성을 적시면서 세시봉의 추억이 부활

했다. 그래서 요즘 '세시봉'이 아니라 그 세대 음악적 감성의 키워드처럼 쓰이고 있다. 아마 이들 세대의 음악적 취향을 다룬 영화 때문일 것이다. 이브 몽팡의 상송 제목 세시봉(C'est si bon)의 이름을 딴 음악 감상실이 무교동에 문을 연것은 50년대 말 경이었다. 당시 종로동에는 구 화신 백화점의 메트로와 YMCA 옆의 디쉐네가 유명했다. 요즘 아메리카노 한 잔 값의 입장료만 내면 웅장한 스테레오 사운드로 해리 베라폰테의 카네기 홀 실황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발길을 멈춘 곳, 무교동 세시봉 음악감상실에서 듣는 고엽은 완전 색다른 맛이였다. 몇 해 전부터 7080시절의 음악이 그 시대 주역들의 감성을 적시면서 세시봉의 추억이 부활



대변되던 청년문화 세대들의 등장이다. 이즈음 명동 한복판에 OBS 캐빈이 문을 열었다. 1층은 정성조 재즈 밴드, 2층이 바로 통기타 무대로 송창식, 윤형주, 양희은, 이장희 등 젊은이들의 감성을 사로잡았고 3층은 신중현 록 그룹과

◇ 경조사

축하합니다

김경환 장남(8/15)
신우선 장남(10/3)

애도 합니다

양철훈 모친상(7/2) 이은범 부친상(7/7) 이영철 빙모상(7/19)
이충용 부친상(8/1) 정동천 모친상(8/27) 박영만 모친상(9/3)

◇ 회비내신분

연회비(7월~9월)

최선규 김임순 김종현 임영규 양승봉 윤동혁

중신회비(각30만원)

이기석 박용석 이경숙 이홍철 김택영

◇ 회비안내

(중신회비로 납부시 연회비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회비 : 30,000원 중신회비 : 300,000원

우리은행 계좌번호

회비 납부 1006-901-277104
경조사납부 1005-101-255925
협찬 회비 1005-001-954097



SBS콘텐츠허브는 세계적인 콘텐츠 종합 유통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 유통 No.1 SBS콘텐츠허브